

Part 1 — 돈의 종말 (Q&A)

본강의가 못 다 푼 두 질문 — 통화의 미래와 미국 주식의 운명

- 정리 2026-05-13

본강의가 못 다 푼 두 질문 — 통화의 미래와 미국 주식의 운명

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첫 번째 Q&A에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던진 두 주제를 깊이 풀어줍니다. 하나는 **"미래 통화와 화폐 대신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는 천재 두 명(헨리 포드와 일론 머스크)의 100년에 걸친 화두입니다. 다른 하나는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 주식 보유자는 안전합니까"**라는 21세기 투자자의 실용 질문입니다.

두 질문은 결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본강의 2강이 "역사 속 돈의 몰락"으로 데일리우스부터 원화까지의 곡선을 그렸다면, 이 Q&A는 "그래서 다음은 무엇인가"와 "그러면 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두 갈래로 미래를 봅니다.

Q1 — 에너지가 화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비트코인이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만들어지니까 에너지 화폐 후보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분위제(本位制)의 정의가 답을 줍니다.

> 1971년까지 미국 달러는 금 교환환이었습니다. 달러를 들고 연준에 가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준다는 보장. 그 보장이 있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썼습니다. 닉슨이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자 금 분위제는 근본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에너지 분위제도 같은 구조여야 합니다. **토큰이든 지폐든, 들고 가면 정해진 양의 에너지로 바꿔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막대한 전기를 들여 만든(Proof of Work)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을 들고 가서 전력이나 석유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담보 자산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많이 쓴 자산"이지 "에너지 분위제의 기축통화 후보"가 아닙니다.

100년 앞선 통찰 — 헨리 포드의 1921

에너지 화폐의 원조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헨리 포드가 1921년에 이미 제안**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노동의 본질을 바꾼 사람답게 그는 "국가의 진짜 생산력은 금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일찍부터 알아했습니다.

당시 헨리 포드의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금 분위제는 월가 금융 자본가가 노동의 결실을 빼앗는 악랄 시스템이며, 금을 둘러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컨베이어 벨트가 노동력보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키운 시대에는 화폐도 에너지를 따라가야 한다. 그가 제안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 **1 트로이اون스 = 35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kWh = 1달러 식으로 에너지에 달러 가치를 고정**하자.

그러나 시기가상조였습니다. † 4 외부 자료가 그 후를 채워줍니다. 1921년 12월 4일 "New York Tribune"에 발표된 헨리 포드의 제안은 머슬쇼츠(Muscle Shoals) 발전소를 세우고 그 발전소의 kWh를 단위로 한 새 통화를 만들자는 구체적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뒤인 **12월 6일 "New York Times"**는 **"헨리 포드의 금화폐 대체 구상은 그 출발전에서부터 비틀거리며 쓰러진다"**고 비판했고, 결국 1924년 그는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년 뒤 같은 발상(에너지 소비 증명)을 다른 형태로 재구성할 때까지, 헨리 포드의 시도는 잊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폐관 —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화폐

100년 뒤 같은 화두를 다른 언어로 다시 꺼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보는 화폐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 화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다. 화폐의 진짜 역할은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는 달러나 유로를 하드 커런시, 한국 원화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를 소프트 커런시로 구분합니다. 머스크는 이 구분을 거부합니다. **모든 종이돈이 소프트 커런시**라는 시각입니다. 정부가 마구 찍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 달러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달러의 담보 자산이 무엇이나 — 놀랍게도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이 빚을 많이 질수록 더 많은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구조. 빚이 통화를 떠받치는 구조에서 가치 하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머스크에게 진정한 하드 커런시는 달러가 아닙니다. **문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곧잘 화성을 끌어옵니다. "달러나 금을 화성으로 가져가 봐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류 문명을 확장하려면 결국 에너지다."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솔라시티(생산) → 메가팩(저장) → 전기차(소비)의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흥미롭게도 이 모습은 발명품의 원조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에디슨이 전구 자체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 생태계**로 진짜 업적을 남긴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튼만 니콜라 테슬라를 따라 했을 뿐, 비즈니스의 본질은 에디슨의 모방에 가깝습니다.

21세기에 가능해진 두 가지 — 블록체인과 ESS

헨리 포드 시대에 에너지 화폐가 안 됐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폐의 3대 기능 가운데 두 가지가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기능	헨리 포드 시대 (1921)	21세기 (2026)
가치 척도	가능 — kWh당 N달러 고정 가능	가능
교환 매개	어려움 — 전선 따라 흐르며 손실	가능 — 블록체인·토큰화로 소유권만 이전
가치 저장	어려움 — 장기 저장 기술 부족	부분 가능 — 에너지 저장 장치(ESS)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실용 에너지는 전력망에 두고 소유권만 토큰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거래 비용도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ESS(Energy Storage System)가 발전하면서 가치 저장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헨리 포드 시대에 비현실적이었던 두 기능이 비로소 실현 가능해진 시점**입니다.

그러나 엔트로피 법칙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가치 저장 측면에서 금은 압도적 우위를 지킵니다. **엔트로피 법칙** — 무질서도가 끝없이 증가한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는 새어 나갑니다.

- **배터리**: 시간이 지나면 저장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 **수소**: 분자가 너무 작아 저장해도 누출됩니다. 액체 수소 상태에서도 총량이 감소합니다 - **석유**: 오래 저장 가능하지만 탈탄소 분위기에 시대적 가치가 새어 나갑니다

금은 영원합니다. 5천 년 전 이집트 무덤의 황금은 지금도 같은 질량입니다.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보존이 어렵습니다. **이 격차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에너지 화폐의 본질적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보는 미래에는 강한 동력이 있습니다. 노동이 AI와 로봇릭스로 바뀌는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가 결국 에너지로 환산**됩니다. 더 결정적인 동력은 **미·중 패권 분리**입니다. 진영 간 거래가 본격화된면 달러로도 위안화로도 합의가 안 됩니다. 1980년대 미·소 냉전에서 양 진영이 각자의 통화를 썼던 것처럼, 미·중 시대에는 **진영을 넘나드는 표준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 후보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향후 화폐 시스템 — 4분화 진화

종합하면 향후 통화 시스템은 단일 기축통화가 아니라 **4분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큼니다.

구간	통화	역할
장기 가치 저장	금	4천 년 동안 통한 유일한 걸 — 여전히 유효
국내·우방 간 거래	달러·유로·위안·원	진영 안에서 종이돈 계속 사용
종이돈의 진화 형태	CBDC·스테이블 코인	종이돈 신뢰가 낮아지면 디지털로 진화 (공통 → 조류 비용)
국가·진영 간 거래	에너지 (가능성)	금은 이동·중서 신뢰가 어려워 에너지가 후보

마지막 구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가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미·소 시대처럼 물물 교환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21세기에 그렇게까지 원시적으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에너지가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입니다.

다국화의 노멸 — 단일 기축통화는 300년 예외였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한 감이 듭니다. "원래 기축통화 하나로 국제 거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시대의 익숙함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통화를 사용한 4천 년 중 단일 기축통화 시대는 영국 파운드부터 미국 달러까지 약 300년**뿐입니다. 나머지 3,700년은 통화가 두 개나 세 개로 나뉜 시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대항해 시대입니다. 통화가 세 층으로 정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 **금**: 왕실 금고의 가치 저장 수단. 웬만하면 밖에 안 팔았습니다 - **은**: 실제 무역의 표준 통화. 양화 금은 금고에 넣고, 약화 은으로 장사를 했죠 - **동**: 서민들의 일상생활용 통화

격언이 남아 있습니다. **"금으로 저장하고 장사는 은으로 한다."** 본강의 2강에서 다른 로마 시대의 솔리두스(금, 가치 ↑)와 눈무스(불순물, 가치 ↓) 분리도 같은 패턴입니다.

21세기에 이 패턴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큼니다. **금이 가치 저장(대항해 시대 금에 해당), 에너지가 진영 간 거래(은에 해당), 종이돈·CBDC가 일상(동에 해당)** 식의 3층 구조입니다. 단일 통화에 익숙한 한 세대의 시야가 바뀔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div> <div>▶</div> <div>전입 신호 4종</div> </div>	<div> <div>▶</div> <div>1. 기축 재정으로 빛 갖기</div> <div>단기 가치 없음</div> <div>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 감축을 결단하는 신호. '왜 해릴 내가' 심리교 바이든·트럼프 모두 흔들. 단기 가능성 0.</div> </div>	<div> <div>▶</div> <div>2.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div> <div>2026년 가능성</div> <div>물가 급등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때 연준의 태도 변동. 미국 0.1% 천재들이 트럼프 통제로 언젠가 발생 가능.</div> </div>
<div> <div>▶</div> <div>3. 시장 금리 자체 상승</div> <div>**이미 진행 중**</div> <div>정부·연준 의지와 무관하게 10년물 국제 금리 상승. 강의 시점 4.15% → 2026-05 4.38% (+23bp). 4.5% 경계 / 5.0% 위기.</div> </div>	<div> <div>▶</div> <div>4. 달러 vs 종이돈 격차 변화</div> <div>Fed 21% vs BoJ 90%+</div> <div>강의 5:11 명시 — 주요 중앙은행 자산/GDP 격차. 달러는 종이돈 중 여전히 최강이지만, BoJ QT 진행으로 환 분기 사이 105% → 90%+로 좁혀짐. 격차 좁아질수록 달러 패권 상대적으로 약화 신호.</div> </div>	

Q2 — 베네수엘라가 미리 보여준 미래

두 번째 질문은 더 실용적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 주식 보유자는 안전합니까." 답을 찾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의 주가 지수**를 먼저 봅니다.

시점	베네수엘라 IBC 주가 지수
2022년 1월	5,300
2025년 7월	53만 (100배)
2026년 1월 (강의 시점)	600만 (1,000배, 화폐 개혁 전 기준)

3년 반 만에 주가가 1,000배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박살이 났는데도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비밀은 통화 가치 하락입니다. 같은 기간 볼리바르가 암시장 기준으로 **10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통화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정지하게 올라간 셈입니다.

† 2 외부 자료가 그 후를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IBC 지수는 화폐 개혁 후 단위로 5,663 포인트 — **1년 전 대비 +2,283.95%**입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인 1월에는 단 두 거래일 만에 16% + 50%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2026년 3월 **649.47%**, IMF 추정 682% 로 세계 최고치를 갱신 중입니다. 통화는 더 무너지고 주가는 더 오릅니다. 같은 곡선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의 3대 고리 — Catastrophic Boom

본강의 2강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자산이 파멸적 상승(Catastrophic Boom)"을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1. **국가 부채의 늪** — 정부가 부족한 돈을 메우려 국채를 찍습니다. 시장이 사주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직매입합니다 2. **연준의 돈 풀기 + 정부의 돈 뿌리기** — 동시 진행되면 통화량이 폭발합니다 3. **막대한 신용 창출** — 마지막 단계에서 방산 시장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 고리가 깨지지 않는 한 화폐 물량만큼 자산 가격은 동반 상승합니다. 주식·금·비트코인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미국 빅테크 ≠ 베네수엘라 — 글로벌 영업이 헛지

그런데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네수엘라의 멸망한 기업은 아예 없는데도 주가가 1,000배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풀리면 영타리 기업만 있어도 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미국 빅테크의 경쟁력은 베네수엘라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더 결정적인 점은 빅테크의 **글로벌 영업 비중**입니다. 애플·구글·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영업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합니다. 달러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낮아져도 — 세계 최고·마두로 체포(2026-01-05) 직후 단 두 거래일에 16% + 50% 폭등 — 강의가 짙은 Catastrophic Boom 메커니즘의 실시간 검증. **출처: C**

결론은 단순합니다. **달러 가치가 급락할 때 미국 주식 보유는 달러 화폐 몰락으로부터 내 구매력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미국 주식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달러 몰락에 대한 헛지 도구라는 관점입니다.

달러는 종이돈 중 여전히 최강 — 중앙은행 자산 비교

오해 방지를 위해 짚어둡니다. **달러 몰락은 금 대비 몰락**이지 다른 종이돈 대비 몰락이 아닙니다. 세계 4대 중앙은행의 자산 / GDP 비율이 정직한 증거입니다.

중앙은행	자산 / GDP (2025-11)	자산 / GDP (2026-05)
Fed (미국)	21.45%	(참고) ECB·BoJ 대비 가장 적음
ECB (유럽)	39.19%	(한 자릿수 변동)
PBoC (중국)	34.95%	(한 자릿수 변동)
BoJ (일본)	105.63%	90%+ (500조 엔 초과) †3

† 3 외부 자료가 BoJ의 최근 추이를 채워줍니다. **2026년 들어 BoJ 자산이 500조 엔을 넘어섰지만 자산/GDP 비율은 90%대로 약간 내려왔습니다**. 강의 시점 105%에서 한 분기 사이 양적긴축(QT)이 진행된 결과로 해석되지만, 4대 중앙은행 중 최고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보다 4배 이상 돈을 많이 찍은 셈입니다.

달러 vs 엔화에서 달러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달러 vs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vs 유로화에서도 우위입니다. **종이돈 간 경쟁에서는 여전히 달러가 패권**이고, 그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질 정황은 없습니다.

원화의 미래 — 아베노믹스 평행이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더 직접적인 질문은 원화의 미래입니다. 옆 나라 일본이 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점	달러/엔 환율
2012년 (아베노믹스 시작)	76엔
2026년	157엔

14년 만에 엔화가 절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국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1,450원인 환율이 3,000원이 된 충격과 같습니다. 원인은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 일본은행의 대량 돈 찍기,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구조조정. 첫 두 화살이 통화 가치를 결정타로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의 현재 정책은 아베노믹스와 닮은 꼴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와중에 통째까지 순보면서 "돈을 안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재정 적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 화살 중 두 화살은 이미 닳아 있고, 결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뻣고 금융직 관점에서만 봐도 정합한 시각입니다.

다만 결말은 일본보다 좀 더 나쁩니다. 일본은 G2까지 갔던 나라, 한국은 G9까지였던 나라입니다. 같은 정책을 써도 한국 원화가 일본 엔화보다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방어 수단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동원, 외환 보유고, 한국은행의 강제 환율 방어. 모두 몇 년은 버틸 수 있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정부 부작용이 옵니다. **원화는 위로 열려 있지 아래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을 끝내는 3대 신호 — 10년물 4.5% 경계, 5.0% 위기

제 본질적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달러 몰락이 주가 하락 신호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여줬듯 달러 몰락은 오히려 주가 폭등의 동력입니다. **진짜 위험 신호는 달러 몰락이 아니라 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입니다.

신호	의미	가능성
1. 기축 재정으로 빛 갖기	국가 부채 감축 결단	거의 없음 — "왜 해릴 내가" 심리
2.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	물가 급등이 달러 패권 위협할 때	2026년말 시점 가능
3. 시장 금리 자체 상승	정부·연준 의지와 무관한 10년물 상승	이미 진행 중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 의지나 연준의 기준 금리와 무관하게 **시장 금리(10년물 국채)가 스스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작년 9월 18일 이후 연준은 기준 금리를 계속 내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꾸로 올랐습니다. 강의 시점(2026-01-12) 4.15%였습니다.

† 1 외부 자료가 그 후를 채워줍니다. **2026년 5월 8일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는 4.38%** — 약 4개월 만에 +23bp 올랐습니다. 강의가 명시한 경계선 **4.5%까지 가 12bp 넘었습니다**. 5.0% 위기 단계까지 62bp 여유. 연준이 계속 기준 금리를 내려도 10년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 정부와 AI 관련 기업 의존의 체권을 남기지 않도록 신호입니다.

10년물 4.5% 돌파 시 경계 경보. 5.0% 돌파 시 위기 단계. **달러가 몰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미국이 달러를 지키려고 발버둥칠 때, 그때가 미국 주식의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종합하면, 첫 번째 Q&A 세션이 보여준 두 화두는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다음은 다국화·다중화된 통화 시스템이며, 그 전환기에 미국 주식과 금은 종이돈 몰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두 축으로 남습니다. **다만 미국이 달러를 지키려 태도를 바꾸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신호를 가장 정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ONE LINE

통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국화·다중화된 통화 시스템이며, 그 전환기에 금과 미국 주식 은 종이돈 몰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두 축으로 남습니다. **다만 미국이 달러를 지키려 태도를 바꾸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신호를 가장 정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회차 자료 보강

본 회차의 외부 자료 보강은 4 패러다임으로 구성했습니다 — 강의 시점(2026-01-12) 이후의 정량 변화와 강의가 짚지 않은 사례 추적을 채웁니다.

† 1 시간 연장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026-05-08 기준). 강의 시점 4.15%에서 4개월 만에 4.38%로 진행. 경계선 4.5%까지 +12bp, 위기 5.0%까지 +62bp 여유. 강의의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 그대로 유효한 시점. **출처: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 - Federal Reserve H.15**

† 2 시간 연장 — 베네수엘라 IBC 주가 + 인플레이션 (2026-05 기준). 화폐 개혁 후 IBC 5,663 포인트, 1번 비고 +2,283.95%. 인플레이션 2026-03 기준 649.47%, IMF 추정 682% — 세계 최고. 마두로 체포(2026-01-05) 직후 단 두 거래일에 16% + 50% 폭등 — 강의가 짙은 Catastrophic Boom 메커니즘의 실시간 검증. **출처: C Iacfas Stock Exchange Index - IMF Venezuela Profile - Business Standard**

† 3 시간 연장 — BoJ 자산 / GDP 변화 (2026-03 기준). 강의 시점 105.63% (2025-11)에서 한 분기 사이 양적긴축으로 90%+ (500조 엔 초과)로 약간 내려옴. 4대 중앙은행 중 최고 비율은 여전. 강의 명제 "엔화는 종이돈 중 가장 많이 찍힌 통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시점. **출처: FRED JPNASETS - Trading Economics Japan C B-Balance Sheet**

† 4 사례 후속 — 헨리 포드 1921 에너지 화폐의 그 후. 1921년 12월 4일 "New York Tribune" 발표, 머슬쇼츠(Muscle Shoals) 발전소 + kWh 단위 화폐 시스템. 12월 6일 "New York Times"의 비판 — "헨리 포드의 금화폐 대체 구상은 그 출발전에서부터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정치적 반대로 1924년 포기. 비트코인의 Proof of Work가 100년 뒤 같은 발상의 재구성이라는 평가까지. 강의의 단순히 "원조 헨리 포드"로 언급된 부분의 역사적 디테일. **출처: 100 years ago, Henry Ford proposed energy currency - Cryptonews**